



## 통도사 인터넷 호법신장

경남 양산 통도사의 초산유원지 반대 운동이 인터넷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도사는 사찰 인근에서 전개되고 있는 초산유원지와 위락시설 건립사업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최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tongdosa.or.kr)에 유원지 건립 반대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신도들도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통도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익성만 내세운 난개발이 통도사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전통사찰의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교문화유적과 국보, 보물 등 수천 여 점의 문화재를 조성하고 있는 통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락시설 조성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도사의 인터넷을 통한 초산유원지 건립 반대운동은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검증을 거치고 다수의 공감을 얻게 되면 현실적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월드컵 열기에 가려있던 효순·미선이의 죽음에 침묵하지 않고 검은 리본 달기 운동을 벌인 인터넷 공간의 목소리들이 수만의 촛불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당선에 젊은 세대들의 인터넷을 통한 힘 모으기가 주효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도사의 이런 노력이 단순히 '인터넷'의 위력에 기대는 결과에 매몰해서는 안 된다. 통도사는 통도사의 대중이나 불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문화적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불교계 전체에 희망을 안기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천미희 기자

## 정대스님 총무원장직 24일 사퇴 표명

# 조계종, 본격 선거 국면

## 3월초 차기원장 선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오는 24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한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제31대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정대스님은 8일 총무원장실에서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종광·지현·도공·탄우 스님 등 중앙종회 분과위원장들과 만나 동국대 이사장 임기가 시작되는 이달 24일 이사장 취임과 함께 총무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이 자리에서 "동국대 이사장과 총무원장을 겸직할

것이라는 역측이 난무하는 것은 좋지 않다. 24일 사퇴 성명을 발표하겠다. 이미 떠날 준비가 다 돼 있다"며 더 이상 총무원장직에 연연해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정대스님은 임기를 9개월여 남겨두고 있다.

정대스님이 24일 사퇴할 경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되고 선거일정이 확정된다.

이에 종법에 따라 선거가 공고되고, 종법에 정해진 최소한 30일간의 선거 공고일(선거운동기간 10일 포함)을 거쳐 2월말 또는 3월초 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총무

원장 선거법 제13조에 따라 24개 교구에서 10명씩 선출되는 240명의 선거인단과 종회의원 81명 등 모두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이에 따라 유력한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종하(서울 관음사 주지), 법장(수덕사 주지) 스님의 행보도 빨라지게 됐다.

한편, 종광스님 등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8명의 요구에 따라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임시중앙종회가 열린다.

임시종회 소집을 요구한 종회의원들은 현재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교구 선거인단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

시돼 있지 않은 문제를 안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종회의원은 정대스님의 동국대 이사장 겸직을 극구 반대해 온 쪽으로, 사실상 임시종회를 통해 원장직 사퇴발언에 책임을 박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대스님이 24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종회는 물론 조계종 전체가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10일 진구·무자·토진·일문 스님 등 4명의 종회의원은 "정대스님이 9일 동국대 이사장 자격으로 총장을 선출 했으므로 이날부터 임시종회 개원일까지 총무원장 직무수행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opia.com

## “종단사태 관련 징계자 사면”

### 조계종정 법전스님, 신년하례법에서 피력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이 종단 사태 때의 징계자들에게 대한 사면 의지를 밝혔다.

법전스님은 5일 해인사에서 열린 조계종 신년하례식에서 법어를 통해 "진정한 화합 차원에서 사면할 것은 사면토록 해 종단의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법전스님은 또 "사부대중과 전국민은 화합하여 국태민안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수행하며,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하례에는 총무원장 정대, 종회의장 지하, 호계원장 월서, 교육원장 무비,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 조계종단 집행부 및 백창기 중앙신도회회장 등 신도단체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민주당 연등회 주최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내외는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발원했다. 사진=박재관 기자

## 동국대 총장 홍기삼 교수

### 권노갑 이사 후임 차기 이사회서 선임

동국대 제15대 총장에 홍기삼(국문과) 교수가 선임됐다.

동국학원 이사회(이사장 정대)는 9일 신라호텔에서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89회 이사회를 열고 홍기삼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에서는 학원 정관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교

수와 교직원노조가 추천한 홍기삼 조희영 정병조 교수, 개인총장후보자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한 현각 보광 스님 등을 대상으로 1차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홍기삼 교수는 과반수가 넘는 7표를 얻어 선임이 확정됐다. 홍 교수는 지난해 10월 20일 동국대 교수회의의 총장 후

보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이사회에 추천됐다.

홍기삼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화합으로 학교중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3면>

또 이사회에서는 권노갑씨의 이사직 사퇴서가 수리됐으며, 권씨가 사퇴한 이사직은 다음 이사회까지 공석으로 남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과 동국학원 이사들은 동국학원 안장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 이사장 녹원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 불교계 NGO·신도단체

### 내년 3월 연합체 구성

### 자연·수행환경수호 연대

자연보호 및 생활환경 수호를 위해 신도단체, 불교계 NGO 등이 연대 활동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년 3월 경에는 연합체를 결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연합체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대한불교산악인불자회,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교육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 교구 환경위원회 등 총 7개 단체를 막론하고 불교계 대부분의 단체들이 참여하며, 조계종 환경위원회 산하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연합체 소속 단체들은 평소 고유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환경 관련 중요 현안이 부각될 경우 연대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올 봄으로 예정하고 있는 '불교환경의제 워크숍'을 통해 확정되며, 하반기

에는 생활 및 자연환경 보존 실천과제인 '불교환경의제'를 설정한다. 이와 함께 연간 1차례씩 워크숍을 열어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불교환경연대나 불교환경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교육도 받게 된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은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때 하부조직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연합체가 구성되면 각종 환경문제에 동원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참여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북한산 관통도로 합리적 해결”

### 노 대통령 당선자 내외 신년하례 법회 참석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와 민주당 불자모임인 연등회(회장 김기재)는 8일 서울 하림각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윤산 태고종 총무원장, 윤덕 천태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협의회 회원 20여 종단 지도자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내외, 한화

갑 민주당 대표, 김기재 연등회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당선자는 북한산관통도로와 금정산·천성산고속철도 통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앞서 조계사에서 가진 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타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화합을 발원했다.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은 "불이와 원용사상으로 계층, 지역, 남북, 국가, 민족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한 상생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 이번 주 '홍보부록(4쪽)' 발행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남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이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남골당